

프리미엄 TV속 '갤러리 콘텐츠' 전쟁



우리집을 미술관처럼

가을 여행지 둘러볼까?



유니온 아트페어 2018에서 모델들이 삼성전자의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The Fram e)'을 활용해 전시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프리미엄TV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 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속 갤러 리를 풍성하게 해줄 예술 콘텐츠를 통 해 경쟁하고 있다.

3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는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리 는 유니온 아트페어 2018에 참여해 '더 프레임' TV를 활용한 작품 전시와 이벤트를 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유니온 아트 페어'는 유망한 현대미술 작가들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작가 직거래 장 터'다. 작가들 스스로 시장을 개척한 다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이며 올해는 총 313명의 작가가 출품한 1800여점 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더 프레 임 19대를 활용해 박상희, 우태경, 전 희경, 최은혜 등 국내 현대미술을 대 표하는 작가 14명의 작품을 선보이고 별도 체험 공간을 준비했다. 더 프레 임 갤러리 존에서는 일정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작품이 바뀌는 슬라이드쇼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

'더 프레임'에 현대미술 전시

LG전자

'올레드 TV' 등 앱서 사진 제공

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더 프레임 체험존에서는 인물화를 중심으로 작 품 활동을 하는 김문선 작가와 협업해 포토부스를 마련했다.

모바일로 김문선 작가의 작품과 함 께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싱스' 앱으 로 손쉽게 더 프레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체험존에는 10월 중순에 국내 출시 예정인 43인치 신규 라인업도 전시됐 다. 더 프레임은 TV를 껐을 때 보여지 는 검은 화면 대신 그림과 사진 등의 예 술작품을보여주는아트모드를탑재해 일상 공간을 갤러리처럼 만들어준다.

LG전자는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 드바이저와 협력해 올레드 TV와 슈퍼 울트라HD TV의 갤러리 앱에서 계절별 추천 여행지 사진을 추가로 제공한다.

최근이탈리아토스카나, 독일 크롬 라우, 뉴질랜드 캔터베리, 불가리아



LG트윈타워에서 모델들이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의 갤러리 앱에서 '트립어드바이저'가 추천하는 가을 대표 여행지 사진을 감상하고 있다.

흑해. 일본 교토 등 대표적인 가을 여 행지 13곳의 이미지를 추가로 업데이 트했다. 연말에는 겨울 여행지 사진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TV에 탑재된 갤러리 앱 을 실행하면 가을 추천 여행지 사진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 독자 인공 지능 플랫폼 딥씽큐를 탑재한 LG 올 레드 TV AI ThinQ(씽큐)와 LG 슈퍼 울트라HD TV AI ThinQ를 이용할 경우에는 매직리모컨의 마이크 표시 를 누른 채 "가을 느낌 테마 보여줘"라

고 말하면 새롭게 반영된 가을 여행지 사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여행지 사 진에 어울리는 배경음악도 함께 감상 할 수 있고, 날씨•뉴스•사진 등을 동시 에 볼 수도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올레드 TV에만 적용했던 갤러리 앱 서비스를 올해 슈 퍼 울트라HD TV까지 확대 적용했 다. 현재 올레드 TV의 갤러리 앱은 예 술작품 이미지 등 70개가 넘는 콘텐츠 를 담았다.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해외 로밍 서비스 음성 수신료 무료화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오늘부터 해외 음성 수신료 무료

로밍 음성 무료 6개 요금제에 적용

LG유플러스가 해외 로밍 서비스에서 도 음성통화 수신을 무료화한다.

LG유플러스는 10월 1일부터 자사의 해외로밍서비스인 '속도·용량걱정없는 데이터 로밍'과 '맘편한 데이터팩' 5종을 포함한 총 6개의 요금제에서 음성 수신을 무료로 무제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로밍 음성 수신 무제한 무료는 지난 2007 년 서비스 개시 이후 처음이다.

기존 데이터 로밍 서비스의 경우 '보이 스톡(mVoIP)'을 통한 발신 통화는 비교 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올 때는 불가피하게 로밍 음성 수신 료를 납부해야 했다.

LG유플러스 김시영 품질·해외서비스 담당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1인당 로 밍 데이터 사용량은 전년대비 28% 늘어 난데 비해 같은 기간 음성통화 사용량은 23% 감소했다.

비용에 대한 고객들의 부담감이 로 밍 통화 이용률 저하로 나타난 것"이라 며 "이번 음성 수신 무료 요금제를 통해 해외에서도 고객들이 음성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로밍 음성 수신 무료 서비스가 적 용되는 요금제 중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로밍'은 중국・일본・미국 등 53개 국에서 하루 1만3200원(부가세포함)으로 모바일 데이터와 테더링(일 5GB 이후 200 kbps 속도)을 무제한 제공한다. 지난 2월 선보인 '맘편한 데이터팩' 5종도 로밍 음 성 무료 수신이 가능하다.

로밍 음성 무료 요금제는 LG유플러 스모바일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내년 3월 말까지 시험 운 영된다. 이후 정규 상품으로 전환될 예 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전자 냉장고, 獨서 '최고 성능' 인증

양문형 '패밀리 허브' 모델 1위 올라 푸드 알리미·미러링 기능 등 호평

삼성전자 냉장고가 독일 유력 매체로 부터 잇따라 '최고 제품' 인증을 받았 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양문 형 냉장고(RS8000NC) 가운데 '패밀리 허브' 모델이 최근 독일 제품평가 전문 매체인 ETM이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 93.5점을 기록하며 14개 모델 가운데 1 위에 올랐다.

이 모델은 냉각 성능과 냉동 성능, 에너 지효율, 용적·조명, 수납성·알람 등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최 고등급인 '매우좋음' (SEHR GUT)을 얻

ETM은 특히 가족 간에 메모를 주고받 거나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패밀리 커뮤 케이션' 기능을 비롯해 카메라를 이용해 식재료 관리를 돕는 '푸드 알리미' 기능, TV·휴대전화를 활용한 미러링 기능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놓았다

삼성전자 원 도어 타입 냉장고는 또다 른 독일 매체 '스티바'의 성능평가에서 1 위를 차지했다. 이 냉장전용고 모델(RR 7000M)은 냉각 속도와 안전성, 에너지, 사용성, 소음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우수

한 평가를 얻었다. 원도어 타입의 냉장고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최고 등급 제품으 로 선정됐다.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는 최근 영 국의 유력 소비자매체 '위치'의 성능 평 가에서도부문별로1~5위를석권하며 유럽 소비자를 만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사관계자는 "ETM과 스티바는 외코 테스트(Okotest)와 함께 독일의 백색가 전 평가 3대 매체로 꼽힌다"면서 "이번에 잇따라 1위에 오른 것은 명품가전 브랜드 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기자

추석 당일 'T맵' 이용자 386만명 돌파

추석 당일인 24일에만 약 386만명이 'T 맵×누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지금까지 일일 최고치였던 지난해 추 석 당일(364만명)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SK텔레콤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자사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T맵' 사용자가 하 루 386만명에 달했고, 9월 한달간 실 사용 자(MAU)가 1160만명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용자들의 길안내 요청 건수는 총 6670만 건이었으며, 하루 최고치는 추석 당일 1526만 건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용자 2명 중 1명이 인 공지능(AI) 기반의 음성 사용자 환경(U I)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9월 한달 T맵 MAU 1160만명 중 48%에 달하는 560여 만명이 음성 AI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

운전시작 시점에 'T맵×누구'와 대화 를 통해 '안전운전 약속'을 하고, 정체 구 간에 들어가게 되면 'T맵×누구'로부터 운세나 뉴스를 청취할 것을 AI로부터 제 안받는 식이다.

SK텔레콤이해열카라이프사업유닛

〈추석 연휴 기간 중 T맵 이용자〉/자료=SKT

	T맵 DAU	길안내 요청 건수
9/26	287만 명	862만 건
9/25	351만 명	1304만 건
9/24	386만 명	1526만 건
9/23	292만 명	884만 건
9/22	324만 명	1055만 건
9/21	316만 명	1037만 건

장은 지난해 9월 'T맵×누구'를 출시한 지 1년만에 사용자의 절반이 음성 AI 사 용 경험을 갖게 될 정도로 AI는 이미 우 리의 삶속에 가깝게 다가왔다"며 "향후고 객 이용 행태를 반영한 다양한 비서형 서 비스를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